

수신 : 원장

참조 : 경영본부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1-23>

2001. 5. 30

KIEP 북경사무소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 집행보고(I)

- 통화정책의 특징을 중심으로 -

1. 개요

□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월 중순 <2001년 1/4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를 발표하였는바, 금번 보고서는 1/4분기의 화폐정책, 거시경제, 금융시장, 산업동향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음.

- 同 <報告>는 최근 화폐 유통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화폐 공급과 경제성장률 조화에 따른 유통속도 감소, 둘째, 은행의 대출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증가 실현, 셋째, 금융기구의 금리 안정 및 유동성 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함.

○ 또한 미, 일 경제의 불안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나, 외국인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에 따라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7.5% 내외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1/4분기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거래 규모가 확대되었는바, 특히 주식시장 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 또한 미국 및 일본 경제 및 금융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적정 화폐 유통량 유지를 건의하였음.

2. 금년 1/4분기 통화정책 분석

□ 1/4분기에는 화폐 유통량이 적절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구조개선 및 증가, 환율 안정을 실현함.

- 금년도 3월말 M2 증가율은 13.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작년 말보다 0.9% 포인트 상승한 것임.
 - o 또한 M1 증가율은 17.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작년 말보다 1.5% 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전년동기보다 1.2% 포인트 낮아진 것임.
 - o M1/M2 비율은 38.2%로 작년 말보다 1.3% 포인트 하락하였음.
-
- 3월말 금융기관의 각종 수신 총액은 12조 9,000억 원에 달해, 작년 말 대비 5,4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업 저축은 800억 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1/4분기 연휴기간 동안 소비 활성화로 인해 기업의 영업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o 가계 저축은 6조 8,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060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924억 원 증가함.
 - o 금융기관의 대출 총액은 10조 2,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신규 대출은 주로 다음 4개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o 첫째, 중장기 기초건설 및 기술 개조 대출이 419억 원 증가, 둘째, 개인소비 신용대출이 695억 원 증가, 특히 주택구매 대출이 286억 원 증가, 셋째, 농업 대출이 374억 원 증가, 넷째, 어음 할인료 394억 원 증가 등 4부문의 신규 대출이 2,024억 원에 달해 1/4분기 전체 신규 대출의 66%를 차지함.
-
- 중국정부가 추진한 내국인 B주 투자 허가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의 외화 예금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었으며, 반면 증권회사의 외화 예금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o 3월말 각종 외화 예금은 작년 말 대비 5억 달러 증가한 1,293억 달러였으며, 그중 기업의 외화 예금은 작년 말 대비 6억 달러 감소한 456억 달러였으며, 가계의 외화 예금은 작년 말 대비 7억 달러 증가한 740억 달러이었음.
 - o 상업은행의 국내 외화 예금액은 작년 말 대비 27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6억 달러 감소하였음.
 - o 또한 중국 국내 금융기관의 각종 외화 예금액은 작년 말 대비 13억 달러 감소한 836억 달러에 달했는데, 감소 배경에는 외화 대출 금리가 인민폐 대출 금리보다 높고, 외화 구매가 용이치 않은 점 등이 작용함.
 - o 외화 대출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완화되는 추세임.

- 3월말 중국인민은행의 본원 통화는 작년 말 대비 1,071억 원 감소한 3조 5,000억 원으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2% 포인트 하락한 7.4%이었음
- o 금융기관의 초과 적립비율은 작년 말에 비해 1.5% 포인트 하락한 6.8%이었으며, 4대 국유상업은행은 평균 5.3%, 기타 상업은행은 평균 14.2%, 도시상업은행은 평균 4.8%, 농촌신용협작사는 평균 6%로 지불 능력이 정상 수준 이상을 유지
- 3월말 중국 외환보유고는 작년 말 대비 103억 달러 증가한 1,758억 달러에 달했으며, 人民幣의 對美 환율은 1달러에 8.2777元으로 지속적인 안정 유지

□ 금년 1/4분기 주요 금융정책 평가

- 최근 3년간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왔는데, 첫째, 적정 통화량 유지, 둘째, 신용대출 정책을 적시에 제정, 건전한 대출 유도를 통해 경제 구조조정 촉진, 셋째, 금융 감독관리 강화, 금융시장 안정화 계획 추진 등임.
- o 그동안 중국인민은행은 ▲상업은행 대출 한도 폐지, ▲7차예의 금리 인하, ▲두 차례의 법정 支準率 인하, ▲공개시장조작 업무 확대, ▲재대출 및 재할인 제도의 원활한 운용, ▲신용대출 조정정책 적극 추진, ▲금융시장 안정화 계획 집행 등 일련의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왔음.
- 금년 1/4분기에도 중국인민은행은 적정 통화정책을 추진하여 전체 중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 o 첫째, 공개시장조작 실시, 적기에 상업은행의 유동성 및 시장 금리 수준을 조절하였음.
- o 둘째, 금리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즉 작년 12월 국내 외화예금 금리를 인하한 이후, 금년에도 3차 외화금리 조정을 실시하였는바, 중국내 1년 만기 미 달러 금리는 5%에서 3.4375%로 낮아 졌으며, 1년 만기 홍콩달러 금리는 4.9375%에서 3.5%로 인하, 인민폐와 외화의 금리차이가 축소되었음.
- o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서비스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
- o 넷째, 농촌신용협작사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재대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 인

민은행은 농촌신용협작사에 새로 200억 원의 재대출액 지원, 농촌신용협작사의 농가 대출 증가를 유도

- 다섯째, 재대출 수단을 활용, 금융시장 및 사회 안정에 기여, 최근 2년 동안 중국인민은행은 재대출 수단을 이용, 신탁투자공사, 도시신용협작사, 농촌협작기금회 등 지방의 각 금융기관의 지불 위험을 해결하였으며, 특히 금년 2월까지 지방정부의 차입금 한도를 조정, 일부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시장 퇴출을 유도 하였음.

□ 기업의 자금수요 부족 문제가 개선되었음.

-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방식 및 대출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요구 수준이 제고되었음을 입증함.
-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내역 중 대출 비중이 1995년 81%에서 금년 3월말 68%로 13% 포인트 감소한 반면, 유가증권 투자 비중은 금년 3월말에 1995년보다 9% 포인트 증가한 14%를 차지하였음.
- 특히 금년 3월말 금융기관의 기타 자산 비중은 전체의 18%에 달했으며, 그 중 약 50%는 외화 자산이었음.
- 금융기관 대출 내역 중 주민 주택소비 신용대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는바, 2000년 대출 증가액 중 21%를 차지하였으며 금년 1/4분기에는 23%를 차지하였음.
- 또한 과거 중국의 기업개혁 및 발전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어 왔으며, 최근 기업의 용자 방식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음.
- 1995년 기업이 조달한 외부자금 중 은행 차입이 96%, 주식 및 기업채권 등이 4%를 차지하였으나, 금년 3월말 금융기관 차입 비중은 84%로 낮아졌고 주식 및 기업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16%까지 증가하였음.
- 2000년 금융기관 대출은 1조 3,347억 원 증가하였으며, 외화는 735억 원, 주식 및 기업 채권은 2,187억 원 증가하여 모두 합계 1조 6,287억 원이 증가하였음.
- 금년 1/4분기 기업의 저축 증가율은 20.8%에 달해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는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 저명 경제학자 茅于軾교수, 민영경제에 대한 규제 완화

- 최근 저명 경제학자 茅于軾교수는 <중국의 민영경제>라는 논문을 통해 민영경제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규의 규제 완화와 소유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茅교수는 민영경제 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① 가족 경영, ② 노사분쟁 빈발 ③ 채무의 불투명성, ④ 기업간 상호 채무 과다 등을 지적함.
- 茅교수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중국 국유경제의 적정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5가지 건의를 제시함.
- ①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에 동등한 대우 부여, ② 사유재산 보호, ③ 중개기구 발전, ④ 자금의 원활한 흐름, ⑤ 사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금융기구 설립, ⑥ 양호한 법률환경 마련(經濟導報, 2001, 5. 29)

2. 1-4월 공업경제효율 지속 증가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4월 전국 공업기업은 생산의 안정적인 고속 증가에 힘입어 경제효율 수준과 이윤의 지속적인 향상을 실현했지만,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였고 적자기업의 적자도 감소함.
- 경제효율 종합지수는 전년동기대비 8.5% 포인트 상승한 114.2
- 매출액은 15.9% 증가한 2조 6,756.4억 원
- 이윤총액은 35.1% 증가한 1,227.6억 원, 그중 국유 및 국유지배주주기업의 이윤은 39.1% 증가한 665.9억 원
- 누계 세금총액은 14.3% 증가한 1,691.6억 원, 그중 국유 및 국유지배주주기업은 12.2% 증가한 1,190.2억 원
- 적자기업의 적자액은 13.8% 감소한 457.1억 원, 그중 국유 및 국유지배주주기업은 21.3% 감소한 281.5억 원 (金融時報, 2001. 5. 25)

3. 중국 은행산업의 주요 문제점

1) 부실대출, 낮은 자본금 및 영리수준

-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없으나, 국유독자 4대 상업은행이 채권의 주식전환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부실대출은 1조 원, 10여 개 주식제 상업은행의 부실대출은 900여 억 원, 이밖에 100여 개의 도시 상업은행과 수많은 도농신용협작사 및 농촌신용협작사가 안고 있는 부실대출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고려하면 대형 국유은행과 주식제 은행의 문제가 우선 되어야 하지만, 도시상업은행과 도농신용협작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음.
- 대량 부실대출을 방지하고 은행의 자산증액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바 최근의 조치는 다음과 같음.
 - ① 1998년 은행지준율 조정을 통해 2,700억 원의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4대 국유 독자 상업은행의 자본금 보완에 사용
 - ② 2000년을 전후하여 2개 주식제 상업은행이 상장하여 각각 40여억 원의 주식 자금을 조달
 - ③ 1997년이래 일부 중소금융기관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이용하여 조정 추진
 - ④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을 통한 4대 국유은행이 부실 채권의 주주권 전환 및 자산회수 추진
- 부실채권 처리문제에서 현재 급선무는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증가를 억제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율(GNP중 부실채권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인하시키는 것임.
- 금융기관의 영리증가 및 적자감소도 자본금 보완 및 부실채권을 인하를 위한 효율적인 경로이지만, 지난 96년과 98년간 대형은행과 주식제 은행은 이윤을 하락 및 절대액 감소 등의 위기가 나타났음.

2) 유동성 문제

- 최근 수년간 중국의 금융기관(주로 대형 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은 유동성 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음.

① 국내주민의 높은 저축 성향

② 90년대 중반기에 시작된 대규모적인 은행기구 업무 정돈에 따른 일부 유동성 낮은 투자활동(부동산) 철수 및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보유

- 중국의 은행은 과거 고액준비금제도(법정지준율 20%)를 실시했지만, 실제 단기적으로 지불문제가 발생할 경우 준비금을 사용하기보다는 중앙은행으로의 재대출을 통해 해결해 왔음. (經濟導報, 2001. 5. 22)